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北朝鮮의重要性과 滿鐵

一

近者 北朝鮮의 景氣가 조타고 事業界에서는 너나할것업시 北朝鮮開發에 囑目하고 잇다 元來 北朝鮮의 經濟的 軍事的乃至政治的價値가 重要하게된것은 一朝一夕의 일이아니요 其實은 日本帝國이 大陸進出政策을 樹立할 當初부터의 일이다 그래서 이政策의 實現이 着着 進行됨을 따라서 滿洲事變이 잇섯고 滿洲國의 獨立을 보앗스며 이滿洲國은 日本帝國의 支援下에 政治 經濟 其他 各般에 亘하야 發展途上에 서게되엿다 그러데 滿洲國에서 日本內地와 交通은 北鮮을 經由하는것이 最短距離가 되는것은 長據할 必要도업시 누구나 다잘알고 잇는바이다

二

於是乎 日本海는 日本本島 九州 朝鮮을 가지고 둘러싼 一個의 湖水가되여 버린것이다 따러서 裏日本과 呼應하야 잇고滿洲의 門庭과가튼 北朝鮮은 重要性이 一層增大되엿다。그래서 滿洲에對한 國策經營에 一荷를 메고잇는 滿鐵에서는 北鐵의移管과 및 羅津港의 經營權을 獨占하고 飛躍的武步를 내여디디엿다 그뿐아니라 長津水電을 中心으로하는 朝窒王國이 建設되고 또이 電力을 中心으로하는 各種工業의 勃興을 보게되여서 北朝鮮一帶는 그야말로 刮目의價値가 잇서 飛躍的發展을 遂한것이다。이와가티 여러가지 經濟的條件을 具備하게된 北朝鮮은 其實過去의 發展보다도 將來의 發展性이 無限大라고 아니할수가업다。

三

그러나 한가지의 問題는 羅津中心으로 交通網을 맷는것이 果然 安當하냐 아니하냐하는것이다、事實上 羅津은 一個의 無名寒浦로 一躍大港이 되엿는데 그裏面에는 滿鐵의 獨占勢力이 優越한바가 잇는까닭이다 最初羅津이 開港될때에는 淸津 雄基等 既設港은 不安과 猜嫌을 가지고 鬪爭을 하다가 國策上羅津이 新開港으로 決定됨에 含淚忍從하여던것이다 그러나 北朝鮮開發의 大使命을 띄고 잇기는 彼此의 輕重이 업는것인데 滿鐵에서 自己의 經營이라고하여서 羅津만을 庇護하는것은 他港으로서는 到底히 容認할수가업는바이다、그러므로 北鐵의 局鐵還元論、埠頭國營論等의 强硬論이 擡頭하게되고 鐵道와 港灣의 經營權을 滿鐵王國으로부터 剝奪하라는 叫喊이 高調되게되는것이다。

四

滿鐵의 實行한다는 羅津偏重主義는 其實 滿鐵經營의 反對側에서 主張하는바와가티 輸送不圓滑 運賃太高 貨物事故頻發 埠頭荷役過重 從業員不親切 建設誠意의全無 等弊害가 업다고하여도 考慮할 두서너가지의觀點이 잇다。그것은 今番에 張鼓峰事件의 經驗으로 보아서 羅津만을 連絡의 終點으로하는것은 軍事上 運輸上 交通上 支障이 업스리라고 하기 어렵고 또 羅津만을 偏重한다는것은 鮮滿交通開發과 裏日本과의 連絡關係에 잇서서 不利 不經濟를 招來할 念慮가 잇다 뿐만안이라 咸南一帶에 勃興하는 各種工業과의 聯絡性을 稀薄하게하는것이다。그러므로 北朝鮮의重

要性이 無限大로 보이는이즈음에 國策的見地에 立脚하야 그 全體的發展을 期企圖하여야만할것이다。그러므로 滿鐵도 大乘的 見地에서 偏狹한 我利主義를 一擲하는것이 得策이 될것이다。

要衝三角店占領코 光州로一路驀進

前面敵部隊續續退却

【○○十二日發同盟】光州街道를 따라 一擧히 邁進하는 太田、西尾、上田、森川等各部隊는 十日夕陽三角店을 左右兩翼及正面三方面으로부터 徹底攻擊을 敢行 十一日午前九時二十分敵은 마침내 三角店陣地로부터 死體三百을 遺棄하고後方으로 潰走하엿다 同地에잇든 敵은 張自忠麾下三十八師一百一十四團에 屬하야 追擊砲數門을 가진 有力한 部隊이다 그리고 光州前面의 陣地를 突破한 各部隊는追擊을 조금도 緩和치안코 敗敵을 急追하는中이여서 敵의 第一防禦線據點光州에 大脅威를주게되얏다

【南京十二日發同盟】中支軍十二日正午發表

一、去六日固始縣城을 占領한我部隊는 以後固所에 敵의頑强한 抵抗을 擊破하고 昨十一日午前九時二十分 마침내固始南方二十四粁의 三角店을 完全히占領하엿다

二、去二日以來 富金山及華僊山附近의 敵陣地를 力攻中이든我部隊는 航空部隊의 密接한協力을어더 猛攻을 反復하기正히 十日間 逐次敵의 堅陣을 奪取 昨十一日午前九時二十分마침내 極要인 富金山一角을 完全히占領하고 目下攻擊을 續行中이다

【○○十二日同盟特派員發】我森川部隊의 先遣部隊가 勇戰四粁許까지迫近한 光州縣城은 潢河가貫流하고 大通路가 四通八達한 地點으로 漢口攻略戰에잇서의 最重要據點의一이다、即敵이 光州를放棄하면 漢口直通의 大通路로써 此正面을我進擊方向에暴露하게되며 光州東南方約二十里許에잇는 商城도 直接側面으로부터 重大脅威를 밧게된다 敵은此地位를 重要視하고 精銳部隊를配置하고 西南方에數條의地隙을有한天然의 要害에 加하야大大的防備工事를 施하고잇다고 傳하므로 光州攻略은 相當한激戰이 될것으로 豫想된다

光州까지不過四粁

【○○十二日同盟特派員發】敵은 京漢線 信陽東方要衝 光州를死守코저 그前面의 春何集 桃林鋪、角寺岡等 三個所에 堅固한防備陣地를 構築하고 잇는바我進擊部隊는 敵의 豫期에反하야 前方據點 三角店을 占據하자 쉬일새도업시 同地西南方으로 進路를 變更하고 西南二十里의老寡集을 經由 即時 角寺岡側背를 들코 驚愕狼狽하는 敵을擊破하고 十一日午後十時三十分角寺岡을 占領하엿다 同地로부터 光州까지는 不過四粁이다

堅壘八百高地奪取코 要衝商城으로急進

【鄧家樓十二日發同盟】兩角、里見兩部隊는十一日午後一時를 期하야敢行한總攻擊에繼續敵陣地八百高地를 奪取코 猛攻中이던바十二日午前六時 마츰내山頂을占領하고曉風에 翩翩히感激의 大日章旗를 세웟다 繼續하야 同六時十五分 三角山、團子山、松山을確保하고 前線을 完全히制壓 前夜九時二十分 食林砦田兩部隊에依한 富金山 完全占領과同時에 旬日에亘하야 頑强한抵抗을 繼續하던敵의 史河西岸線으로敗하야 全軍潰滅하고 我各部隊는 敗敵을急追、商城으로向하야 再次灄河의 急進擊을開始하는中이다

【鄧家樓에서 十二日同盟特派員發】史河西岸의線에 集結한 敵兵力은 第十六、三十一、三十五、三十六、三十七、八十八、百十三、百十四、百二十九의各師外에步兵第二旅 教導總隊等 約二萬에達하엿던바 連日의 猛攻擊에 打擊을밧자 다시 信陽方面에잇던 于學忠軍等이 增援하고 最後에 軍官學校 生徒를 出動시키는等 漢口北部防衛線의全運命은 在此一戰이라하며 守備하엿스나 難攻不落을 자랑한이作戰도 我肉彈戰아페는 마침내崩壞하게되엇다 이史河西岸線은 陳誠에代身하야 武漢防衛의 總指揮에當한 羅卓英의術策에서나온것이라한다

【鄧家樓十二日發同盟】去三日來 史河西岸地區에서 ○○部隊가敵에與한損害는 遺棄死體만 約四千 負傷兵을合하면 一萬에達할 듯하다한다

各自治領과連繫코 歐洲情勢推移를監視

英政府스폭스맨의聲明要旨

【倫敦十一日發同盟】첸벌린首相 할리팍스外相 사이몬藏相 以下英國政府首腦는 체코를圍繞한歐洲의 重大危機에關하야 連日協議를繼續하고잇는바 十二日의뉴-른베르히大會閉會式에서의히틀러-總統의 演說을압두고 十一日午後 俄然 체코問題에對한英國政府의 斷乎한決意를 表明하엿다 今日의聲明은 公式콤뮤니케는 아니고 外務省스폭스맨의 記者團에對한 談話의形式으로 發表된바 스포크스맨은 特히 『英國政府의見解를 表明』이라고 冒頭하야 大要左와如한 言明을하엿다

『英國政府는 現在의事態가 戰爭의危險을孕한것 及체코問題는 動亂의導火線이될 可能性이잇는것을 充分히認識하고잇다 그러나政府는 依然 同問題는 平和的으로 處理할수잇다는確信을 所持하고잇다 란시만卿의不屈한 努力은 現在까지 數次에亘하야 그難關을突破하고 마치내체코政府로 하야금 讓步以上으로讓步에 同意시킴에 成功하엿다 英國政府는 체코問題의 圓滿解決을爲하야 今後도 交涉을繼續하는것이 必要하다는見解를가지는것인바 現在의事態에鑑하여도 過激한 解決策에 맛겨 이交涉을 斷切하는것은 그것을 正當化하는 何等의理由도發見되지안는 性質의것이어서 如斯한 企圖는 반드시 全世界의非難을 바들것이다 체코問題는 今後새로운 困難이 發生할는지모르나 란시만卿이 調停役으로서 푸라하에 滯在하는限 圓滿解決策이 發見되지안흐리라는 理由는 存在하지안는다

스폭스맨은 뒤니여 三月二十四日첸벌린首相의 下院에서 行한 外交演說及 八月二十七日의사이몬藏相의 라나-크에서한演說에 言及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此等問題의 內容은 그自體가 明瞭하야 何等異議를 품을餘地가업다 即 체코問題에 對하야 急激한 解決策이 採擇될때에는 체코는 別로하고其他諸國、特히 英國도 亦是此에 휩쓸려 드러가리라고 斷明한것이다 따러서 체코問題의 處理에 當하야 이가튼可能性을 充分認識할 必要가잇다 英國은 佛蘭西의 存亡에 脅威를 與함과가튼 全般的紛爭이 勃發할時는 此에 對하야 傍觀者로써 그칠수업다 獨逸은 이가튼見地에서 첸벌린首相及 싸이먼 藏相의 演說을 解釋하여야한다 獨逸政府가此點에 關하야 誤算을하지아니할것이 가장重要하고 就中獨逸이 체코에 對하야 擧事할境遇 佛蘭西及英國의 干涉을 誘致할 可能性이 업을만치 敏速히그目的을 達할수 잇스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十二日뉴른베르히大會 閉會式에서의 히틀러總統의 演說은 國際政局의 重大化에 鑑하야 各方面에서 疑訝하고잇다 히틀러總統은 從來도 恒常平和를欲求하는旨를 强調하엿고彼의誠意를 疑心함은 잘못이라고생각한다 英國政府는 체코問題에關하야 各自治領과 緊密한連繫를 保持하야 恒常事態의推移를 注視하고잇다 그와同時에 今回의危機에最初부터英國政府는 佛蘭西와사이에 歷史的 傳統的 提携를 保持해왓다 英國의 最近隣國인同時에 英國과함께 歐羅巴에잇서서의 大民主主義國인 佛蘭西의 安全과 領土의保全은我英國의 그것과 分離할수업는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잇다 英國政府及 米國政府와의 사이에도 恒常 密接한 連絡을取하여왓는데 첸벌린首相及 할리팍스外相은 十一日午後 再次 米國大使 케네듸氏와 會見하야 詳細히 事態의推移를 通告하엿다

聯盟理事會에 支代表對日制裁提訴

(寫眞은 支那代表顧維鈞)

【주네브十一日發同盟】支那代表部는 對日制裁問題를 具體化코저 畫策中이던바 十一日 突然 아브놀聯盟事務總長에게 通牒을 보내여 日支紛爭에關하야 聯盟規約十七條를援用하도록 目下開會中의 理事會에 正式提訴하엿다 支那代表部는 各國代表와 充分한 協議를하지안코 直接아브놀事務總長에 通牒을 보낸것은 一般에게 意外의感을 주고잇는데 消息通은 支那代表部의 提訴도結局 理事會에서 有耶無耶로 取扱되고말것이라하야 如左히 觀測하고잇다 支那代表部提訴에對하야 理事會의各國代表는 日支雙方이宣戰布告를하지안코잇는것을 理由로 規約十七條適用을 拒否하던지 或은十七條適用條件에 關하야 오래동안論議를繼續하던지하야 結局이를畑葬할것이다

提訴內容

【주네브十一日發同盟】顧維鈞支那首席代表는 十一日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聯盟事務總長아브놀氏에게 通牒으로써『理事會는 即時規約第十七條를 日支紛爭에 採用하라』는 旨를 正式提示하얏다 右通牒內容은 如左

正히 一年前의 一九三七年九月二日 余는 貴下에 對하야 日本의 對支侵略을 通告하는同時에 理事會에 對하야 日本의 侵略에 因하야 發生한重大事態에 即應하기에 必要한處置를 講究하도록 要請하엿다 이要請에 基하야 聯盟及그附屬機關은 數個의 決議를採擇한바 이決議는 모두 充分한效果를 發揮치못하엿다 一方只今부터 十四個月前에 開始된 日本의 戰爭行爲는 益益重大性과 野蠻性을 增大하고잇다 支那政府는 極東의現在事態에 對하야 現在規約十七條를 採用함이 聯盟의 利益이고 同時에 一般的平和目的에 對하여도 利益을 齎來하리라고 確信한다 仍하야余는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理事會에 對하야 規約十七條를 即時採用할것을 要請한다 右十七條는 理事會가 現在까지 採用을 躊躇해온것인데 支那政府는 現在의 事態에잇서서 聯盟의 有效한 行動에即하는가장適切한 手段이라고 思考하는바이다

前線敵據點突破코 要衝馬頭鎭壓迫

敵、大部隊를續續增援

【○○十二日發同盟】十一日早曉를期하야 一齊히 攻擊을開始한 江南戰線各部隊는 前面敵에對하야 怒濤와가티 進擊을敢行、山嶮에依據한 敵主力을逐次制壓하고 一嶺又一嶺式占領하고 十二日朝에右翼部隊는 어느덧 揚村、馮山 嚴家山線을 確保하고 左翼은劉家의敵據點을突破한後 前門滴를 도그一部는 烏石街北方을迂回하야 門口山線으로進出하엿다 이때문에 敵의江岸戰線據點인 馬頭鎭南方敵은 極度의重壓을밧고잇서 敵은同方面에 目下大部隊를增援中이다

我海軍航空隊 中南支方面爆擊狀況

【上海十一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一日正午發表

一、昨十日中支方面에서 海軍航空隊는江上艦隊及 陸上部隊作戰에協力 江岸의敵陣地 敵根據地部落을攻擊 이를制壓하엿다 그리고 同部隊는 京漢線上의 許昌及 丁城을 爆擊하야 驛附屬建築物倉庫를 爆破線路數個를切斷하고 構內에 碇繫한 加工品에大火災를이르킷다 我方의損害는 업다

一、南支方面에서는 前日에繼續 左記個所를 空襲하엿다

가 源潭鐵橋攻擊部隊는 橋梁의一部를落下又는 平乖下驛의 線路數個所를 切斷하엿다

나 華村莊攻擊部隊는 同鐵橋殘存部에 對하야 大損害를주어 交通路를 遮斷시켯다

다 廣九線遮斷에向한 部隊가線路數個所를 切斷하엿다

센軍港豫備將校에 機密指令을發令

召集令接受後二日內로出發토록 英政府萬一의境遇備해

【쎈디에고十一日發同盟】歐洲의情勢險惡化가 傳하고잇는此時 쎈디에고在住 英國豫備將校四十名(其大分은陸軍將校)은 十一日 英國政府로부터의召集命令을接하는대로 四十八時間以內에 倫敦에向하야 出發할수잇도록 準備하라는 機密指令을接受하엿다고한다。그런데 右命令은 戰爭이勃發될때 紐育에서 乘船할船名까지 指定하엿다고傳한다 一九一四年世界大戰勃發當時도 同樣의例가잇서 英國이 萬一의境遇를 豫想하고 着着準備를進行하고잇는것을 示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廣州灣에佛國 飛行根據地完成

【香港十一日發同盟】當地에 達한 外人側情報에 依하면 廣州灣에잇는 佛航空母艦크로브르크號는 十日突然廣州灣을 出發歸還의길을 떠낫다 同艦은 過般來 廣州灣에 軍用飛行場 根據地를 建設코저 特히 本國으로부터派遣된것으로 同艦의 歸還은 飛行根據地의 完成을 意味하는것으로보힌다 同情報에 依하면 아직도 廣州灣에는 數隻의佛國艦艇이 碇泊、同艦은 防備施設擴張에 當하고잇다 이外에佛國側은 이미 西沙島에 無線電及 觀測所의設置를 完成한外 約二百名의憲兵及 驅逐艦二隻을 同島防備에當하게하고 잇다한다

國府、蘇聯邦과 武器二千萬元購入契約

【東京電話同盟】[illegible] 目下에는 蔣介石政府는、蘇聯으로부터 武器購入에 狂奔하야 既히 四、五百萬元을 購入하고잇는바 十一日某所에達한 情報에依하면 最近漢口에서 孔祥熙及오리로스키-蘇聯大使間의 交涉結果 蘇聯政府로부터 武器二千萬元의購入契約이 成立하엿다한다 購入武器의種類는 戰車百台 裝甲車百五十臺 [illegible]二千臺 野戰砲五百門 機關銃三千挺이라고하며 蘇聯으로부터의 大量武器購入은 抗戰黨의 企圖하는 漢口死守工作戰을 說明하는것이라고 豫想된다

蘇聯邦서도 西部軍備를强化

【莫斯科十一日發同盟】체코問題를圍繞하는 政局不安에 對應하야 佛國을비롯하자 歐洲各國은 緊緊히 國境方面의 軍備充實에 努力하고잇는바 十一日 아바스通信社莫斯科支局은 蘇聯政府도 萬一에對備하기 爲하야 西部國境方面의 軍備强化에 着手한旨 左와如히 報道하고잇다

蘇聯政府는 萬一의 境遇 即時緊急動員을 斷行할수 잇는 權限을 賦與하기爲하야 最近 西部國境 키에프及 白露西亞軍南部軍管區를 特別軍管區에 昇格하고 極東特別軍과同樣의 自治權을 附與하엿다 또首都莫斯科로부터 西部國境에 至하는 各道路는 獨立合邦實現以來 全部修理되어 完全히 近代化되엇다 各部隊는 最大限의動員을行하야 何時든지 出動할수잇는準備를 하고잇는 一方 除隊期限에 達한 兵員은 形勢險惡을爲하야 從先來二十日까지 除隊를延期하엿다 그리고 赤軍의 秋季大演習은 最近終了한바 參加部隊는 모두 原隊에 歸還하지안코 當分間 그대로 集結을 繼續할 模樣이다

南總督巡察의 第一步를濟州島에

【木浦에서古律同盟特派員發】半島僻陬의地에까지 親히足跡을남겨 地方官民에 呼唱하고『時局認識』과『內鮮一體』를 强力的으로 具現시키려고 南總督은 昨秋以來 政務多端한 餘暇를 利用하야 各地方視察을 繼續하고잇던바 半島施政에 一時期를劃하는 時局對策調査會도 去九日로써 終了하엿스므로 再次 地方視察의 途에올라 그第一步를 全南濟州島로選擇 昨十二日午前七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 近藤秘書官 東鄕海軍御用掛를帶同하고 前後六日間의 强行日程으로 濟州島 小鹿島視察의途에 出發하엿다 總督은 時局對策調査會를 終了하고 最近三日間은 每日深更二時頃까지 官邸에서 右調査會에關한 政務를處理하여서는 當面한政策을 練磨하엿다고한다 今回의巡察은 一路濟州島로 向하는것이며 그第一步를 濟州島로 擇한것은 同島將來를 約束하는것으로 觀測된다

京城出發後 車中의總督은 沿線官民 一切의 送迎을미리 禁止하도록 嚴達하고 特別車의 一室에안저서 山積한書類를 終始閱覽하면서 午後零時二十四分 大田着 湖南線에바꾸어라고 同五十分發 一路木浦에向하엿다 途中新任全南知事 齋藤同警察部長의出迎을맛고 여러가지 全羅南道의 管內事情을 聽取하고 午後六時二十五分 木浦驛着 驛頭에 官民多數의 出迎을바드며 直時埠頭에赴하야 警備船金剛丸에 乘船 新聞甲板에서 山本府尹의 說明을 聽取하고 港灣을視察한後 午後八時半出帆 八浬의海路를 一路濟州島에向하엿다

人事·集會

◆上野警察部長(京城龍山警察署長)新任人事次十二日來社

◆池尾芳藏氏(朝鮮電力社長)重役會出席次十二日午後아까쯔끼로入京

◆內藤熊喜氏(朝鮮電話專務)同上

柳林、大武鎭攻略後 敵軍主力과遂衝突

山西方面戰果漸次擴大

【石家莊十二日發同盟】山西軍掃蕩을爲하야 離石方面으로부터突然進擊을 開始한 我○○部隊는 所在의敵을 擊破하면서 逐次西方山地에 擊退하야 戰果를 擴大中이다 即 松井部隊는 十離石軍渡에 通하는 通路兩側에잇는 敵과交戰하야 이것을 擊破하고 十一日午後六時에 마침내柳林鎭(離石軍渡의 中間)을 完全히 占領하엿고 또石田部隊는 大武鎭을 攻略後 向今도 敗敵을追擊、磧口鎭으로 向하야 攻擊前進中이다 一方離石、磧口鎭 [illegible] 西北進中이든 ○○部隊의 一部는 十日午後四時 十里村(離石、磧口鎭中間)에進出 目下 이附近一帶에 蟠踞하는 山西軍主力 王靖國軍의 一部와 交戰中이다

"公債消化充分"

米紙日本戰時財政論

【紐育十日發同盟】잘·오브·콤마스紙는 十日紙上에『日本의 戰時財政』이라고 題한 論說을揭載 日本財政前途를 如左히 論하엿다

六月末現在의 日本公債는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十億圓이 增加되엿는데 이는 大體只今까지의 事變費로 보아도 조흘것이다 그러데 이外에 信用膨脹을 無視할수는업다 日銀의 紙幣發行高는 事變第一年度의 十三億九千圓으로부터 十六億五千六百萬圓에 增加되엿다 政府는 消費節約을 勵行하야 인풀레이숀을 防하고잇는데 一年間의 卸賣物價指數는 一八九로부터 二○二에 小賣指數는七五로부터九七에 昂騰하엿다 日本財政이 이以上負擔能力이잇다고봄은 잘못으로公債消化는 아직도充分하다 다만日本財政의 一大弱點은 金準備가 漸次減少해가는것으로 日支紛爭이繼續되는限 海外로부터主要物資를 輸入하는 日本으로서는 輸入을줄게함은 不可能함으로 事態가 오래끌면 끌수록金準備는 減少될것이다

在米高

九月一日現在

【東京電話同盟】農林省第二次發表=九月一日現在의 岩手縣外十六地方의在米高는 五、八九○、二八五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一三三七、七四八石의增加이다 그리고 第一次發表分과의合計는 九、八四三、五六七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五七六、五七六石의增加다

夕刊後市況 十二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illegible]	[illegible]
群山	—	[illegible]	—
木浦	—	—	[illegible]
下關	—	—	[illegible]
名古	—	—	[illegible]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人絹	[illegible]	—
福井人絹	[illegible]	—
橫濱生系	[illegible]	[illegible]

日本ソースの草分け

イカリソー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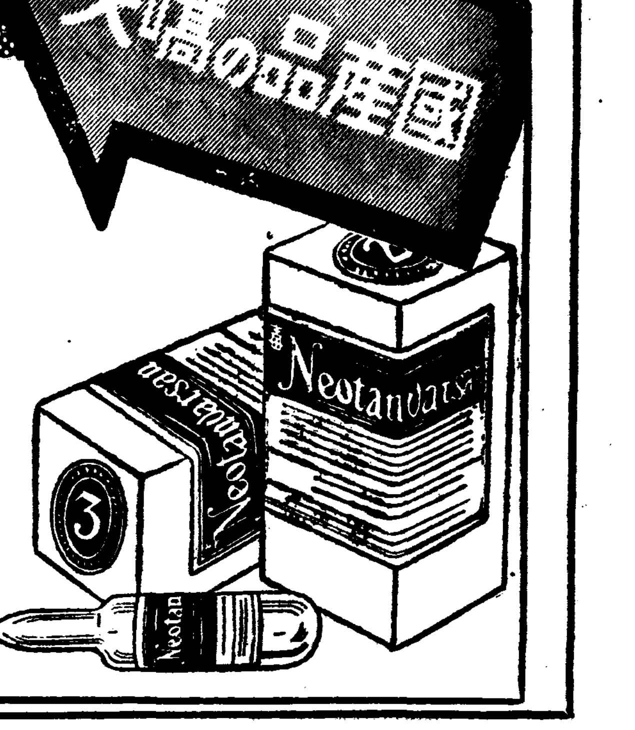
普通ソース量の五分の1にて充分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驅黴砒素劑

國産品の嚆矢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 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네오탄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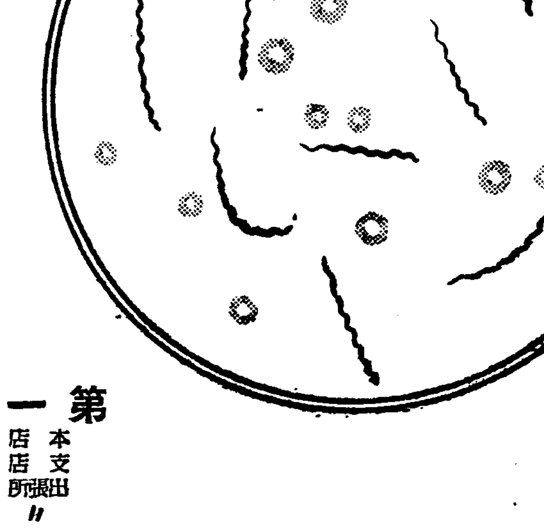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癒와豫防에適합。

또脊髓癆、麻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테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瘴氣熱、熱帶苺瘡等에도 特效잇슴

또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砒素劑應用의 모든範圍에 良效잇슴

包裝

一號(○·一五瓦) 四號(○·六○瓦)
二號(○·三○瓦) 五號(○·七五瓦)
三號(○·四五瓦) 大號(○·九○瓦)



또靜脈內注射不可能의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잇슴

또此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ギフロン의 選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琴平町三番地

NTO

土木費削減不關 金山道路、積極促進

來明年까지에總完成計畫으로

戰時[illegible]의鋪道邁進!

조선의 지하자원 개발에잇서서 특히 금의증산은 가장중요하고 긴절한것으로서 이미 총독부당국에서 금년도부터 산금오개년계획에 착수하야 칠십오『키로톤』을 목표로 착착진행중이거니와 이 산금증산에잇서서 제일목표로 되여잇는 금산도로(金山道路)에 대하야서금년도부터 삼개년계획을 세워서 이미 착수진행중이다 그런데최근 정세며 시국이 긴박하여감에따라 도로개수며 하천개수며각종토목사업에 상당한 타격을바다지난달에금년도의 각종토목사업 실행예산이 이할오분내지 사할의삭감을받고 말엇스나 이금산도로만은시국이 긴박하여질수록 산금이필요한까닭으로해서 더욱 초시의 급선무로되여잇서 몰론최초계획대로 진행하여 나갈뿐더러한거름 더나아가서 그촉성을하지안흐면 안되겟스므로 지난번조선 산업부장회의에서도남총독이 이촉성에 대하야 지시까지하게 되엿다 금년도에는일백이십오만원의 공사비를드려총계획선 삼십구개선의 금산도로중에 이미사개선을 완성하엿는데 명년도에는 이십칠개선의 개수를 진행하야 칠개선의 금산도로를완성하고저 이백오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되엿다 이리하야 삼오년도중으로 공사비 칠백만원을드려서 총연장 일천오십사『키로』의 삼십구개선의 금산도로가 완성되리라고한다 그리고 어와동시에 이계획도로이외의 일반파업자들이 자비로써 개수하는 금산도로도 시국에비추어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저 각도당국으로하여금 모든편리와 원조를 보아주도록되엿다고한다

農村에犯罪激增

京城은줄어잇는데郡部는늘어

八月中 京畿道의犯罪統計

불유쾌한통계—팔월한달동안에경기도관내에서의 범죄발생및검거상황에편하야 도경찰부에서작성한 집계표를보면—경성부내는 발생이 일천륙백이건 검거가 일천백오십사건이오 기타군부(郡府)는 발생이 오백칠십칠건검거가 오백삼십오건인데 이것을합처보면 팔월한달동안에 경기도전체에서 발생된 범죄건수는 이천백칠십구건이나되고 검거되기는 일천륙백팔십구건이 나되는세음이다 이것을 전년동기와비교해본다면 발생에잇서서 팔십사건 검거에잇서서 삼백사건의 격증인데 불엇다고는하나 경성부와기타군부와는 그사정이갓지안허 군부에서는 발생도 구십팔건이나붓엇고 검거도이백삼십삼건이나붓엇스나 유독경성부만은 반대로 발생은십사건이나줄엇고 그대신 검거가칠십일건이나늘고잇다는 기현상을보여주고 잇다 그리고 대체로보아서 살인, 방화, 강도와가튼 어마어마한범죄는 작년파대차가업고 대신 군부에서는 절도와사기, 그리고 전체를통해서는 도박이 단연우세인것이 주목을끌고잇다

忍苦鍛鍊講習에 南總督激勵電

지난십일일부터 십오일까지 내금강 장안사(長安寺)에서 열린 인고단련강습회(忍苦鍛鍊講習會)의 참가자는 각도사회주사전조선 각중등학교직원 전조선사회교화지도자로서『사람』인도하는 정신체득에 정진하고잇다남총독은 이강습회의 개회를당하야 다음파가튼 고사(告辭)를전보로 띄워전원을 격려하엿다

조선교육에잇서서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삼대강령의 달성의결은 교육자신념의 화합에잇다 총독은 이강습회에 크게기대하다 잘이점을생각하야 인고단련의 성파를 기대바란다

科學智識普及會 發明學會와懇談

부내에잇는 발명학회(發明學會)와 파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간부십여명은 십이일오후네시경에 부내관철정(貫鐵町)백합원(百合園)에서 다화회(茶話會)를 열엇다는데 그석상에서 다음파가튼협의를 하엿다

一、시월일일 발명학회 창립제십오주년기념일에 해당함으로 기념공로자를 표창할것

一、파학지식보급회 차기회장추천에 관하야는 위원으로 원익상(元翊常) 김용관(金容瓘) 양씨를 선정하고 후보자추천을일임하엿는데 정식결정은후일로미루엇다

昨夜、新堂町에火災

엿장사집에서불나십여호소실

新明學院에災民收容

십이일밤 열한시이십분경 부내 신당정(新堂町)이백삼십육번지의 이백삼구호 엿장사 이태관(李泰寬)(?)의집에서 불이나서 약한시간동안에 다음파가튼 십여호를 전반소하고 열두시이십분경에 진화하엿다 소방서에서는 총출동하엿고 동대문서에서도총동지화에 노력하엿는데 손해는 수천원에 달할모양이다 원인은 이태관의집 구들을 고치고 방을말리느라고 불을 너무만히때기때문이엇다 그리고 화재현장에인접한 신명학원(新明學院)은 다행히 무사하엿고 이재민은여기수용중이다

罹災家屋主姓名=成千甫 成基守 陳容敏 李永稷 金用學 陳福龍 李聖學 韓應天 韓應鏡 外牛舍若干

(사진은 화재현장)

百萬長者의正體 其實은紅燈街돈괄

백만장자의 외아들이라 자칭하고 귀금속을 외상으로사다가 전당에넣어가지고는 그것으로총무령대의 카페와빠의 여급을끄려 정조를유린하고 화류계의화형장부로 행세하다가 유치장신세를진사나이—본적 [illegible] 망운면목동리(務安郡望雲面牧東里)에두고 시내에 일정한주소가업는고광래(高光來)(三一)라는사나이는 작년가을이후 시내명시당(明時堂)의 교원 최돈영(崔敦榮)과 친분이 잇는것을 기회로 이사람에게 자기는시골부자의 장자인것을 밋게한다음 명시당에서 전후오차에 궁하야 귀금속의 외상을어더서 그것을 다른데다가 팔아 가지고 종로 일대의 카페 빠를 도라다니면서 역시 백만 장자인체하면서 여급들을 꾀여 정조를유린하고 도라 다니다가 탈로될것을 무서워서 숨어다니다가 시외 일본정서원외손에 잡히여 엄중취조를 밧고잇다

"이제는 미세쓰宋"!

미쉬간湖畔에서이뤄진國際結婚으로 스마트한男便과朝鮮온宋福信

동경에서 공부하던 조선학생사이에 한때평판이잇던 미인으로 화제의 주인공인 당시의 송복신양(宋福信孃)이 십오、륙년만 별안간 서울거리에 그고운자태를 나타내여 만흔 사람들의시선을 끄을고잇다 그가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 재학당시에는그교태에취하야 가슴을태운 열정청년도 적지안햇섯다

그러나 그는 그만흔 청년의 생활의 봉풋가리 퍼붓는 사랑도 칼날로 베이드시 다물리치고 큰뜻을품고 태평양을 건너멀리 미국으로 유학의길을 떠낫든것이다 그리하야 그는미국『미쉬간』주립(州立)대학에 입학하야 의학을 공부하게되엿다 그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는 가튼학교문과(文科)에서공부를 하고잇는 미국청년과 가까히교재를 하기시작하엿다 그 청년이 바로오늘에는 그의남편으로 이번에 손을 이끌고 가티조선에 차저온『원펄드』라는『미시간주』『하울시』(市)유명한상업가의 맛아들이엿다 인종이다르지마는 청년『원펄드』는 조선『미쓰』송(宋)의 참잇는 고운자태에 황홀정신이 빼앗든것이다 동시에『미쓰송』도『원펄드』청년의 그상냥스럽고『스마트』한장부다운 태도에 역시호감을 가지게된것이엿다 한학교에서매일가티 만나여 사년동안 교제하는동안에 두사람사이에는 뗄라여도 뗄수업는 친밀한 친밀한관계를 맷게되야 드디여 국경을초월한 연애는완전히 성숙하엿든것이다

이때에 벌서『미쓰송』은 조선땅의 청년과는 연애이니 결혼이니 하는문제는 영영하직되고 만것이다 두사람은 팔을 서로끼고 밝은달밤에『미쉬간』호수가에서 물을 비초이는 달빛을바라보며 행복스러운 사랑을『엔죠이』하기 한두번이 아니엿든것이다 세월은 재촉하야 졸업기한을 한해압두고 두사람은드디여 대망의 결혼식을 하게되엿다 졸업론문은 통과되여 송씨는 명예스러운 의학박사의 학위를엇게되고 신랑『원펄드』씨는『마스타오브아-트』의 학위를어덧다 그리하야 남편『원펄드』씨는 자기부친의유업인 백화점을 경영하고 송씨는 공중위생(公衆衛生)방면에 노력하고 잇는터인데 송씨는 그리운고국을차저서 남편을데리고 수일전에 조선땅에 도라온것이다 십년동안 꿈꾸어오든 신혼려행을 이번에야 비로소 실현하게되야 서울에 온길로 곳 금강산을 구경하고와서『원펄드』씨는『원더풀』을 련발하고잇다 그리고 조선사람들은 친절하고 조선강산은 아름답다고 굉장히 례찬하고잇다 안해가 고우면 처가의 울타리까지도 곱게보인다는 조선속담도 잇지마는 원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의경치야 말로 그의솔직한 고백으로도 기려하다하지 안흘수업슬것이다 송씨는 기자에게 간단한 감상담을 어러케 말하엿다

『리해잇는 외국사람과 결혼하야 아모부족업시 자유스럽게 편안한 생활을하고잇섯지마는 언제라도 고국이그리웁고 부모형제와 친척이 생각나지안흘때가업서요』

하면서 은근히 한편의 고적한 회포를말하엿다 그두부처는 방금 조선호텔에서 류숙하고잇는데 수일후에는 미국으로 다시도라갈 예정이라한다

(사진은 송씨 부부)

僻地에도均霑토록 放送網을大擴充

北朝鮮엔東洋一의放送局을

三年計畫으로明年着手

대륙진출의병참기지(兵站基地)로서 조선이가지고잇는 중요성은 지나사변을전회기(轉回期)로하야 전시뿐이아니라 항구성(恒久性)을띄게되엿다 체신당국에서는 민중에대한 선전기관으로 『라디오』망의확충강화를 계획하고 저번에시국대책조사회에도 자문안으로 제출하엿섯다 즉 명년도부터 삼개년계획으로 북부조선적당한지점에 동양제일의 대전력방송국을 국비로건설하야 국내방송의완전화보를 기하는한편 조선방송협회에 다액의보조를주어 지방방송망(地方放送網)을 확충케하로되엿다

현재방송협회소속방송국은 경성, 평양, 부산, 청진의네곳이며 시월일일부터 이리, 함흥의두곳이 개설될예정이므로 여섯군데가되는터이다 그리고 대구(오백와트)와 신의주(오십와트)도 명년삼월까지에는 공사에착수하기로되엿스며 아프로 중계방송소로는 대전(大田) 해주(海州) 진주(晉州) 목포(木浦) 혜산진(惠山鎭) 춘천(春川) 안동(慶北安東)등이잇는데 이것이완성되는날에는 아주편벽한 지방에서도 방송을듯게되여 조선의라디오선전망은 일층완비되는세음으로 기대되는바크다

金密輸公判

昨日부터開始

금밀수출에관한 백사십수만원이라는 거액의 금괴(金塊)와 금강(?)의 금밀수사건의 준비공판은 십이일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판사(豫審判事)재판장주심으로열렷는데 이것이 끗나는대로 공개공판을 열게되리라고한다

膀胱가다루 腎臟病全快

고처두지안흐면生命에關係된다

腎臟이나膀胱이나빠서蛋白이나血尿나 細菌으로해서 尿가濁해지던지, 부어오르던지, 小便이조금식나오던지, 아프고冷하던지 또는困難한것이 이名藥은尿病의根本에잇습니다. ...

東京市本鄕區... 富士山院事務所

振替東京七五二...

普專軍破竹之勢 延專後半에苦戰

兩軍送別籠球初日盛況

56……39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할 普專과 [illegible] 延專과의 送別籠球第一日은 十二日午後 五時二十六分(豫定보다늦게)에 安國町 徽文小學校코-트에서 열리엿다 [illegible] 觀衆은 [illegible] 手에 [illegible] 今十三日 午後五時부터 第二回戰을 擧行하기로되엿다

普專 56 (30·20 / 19·20) 39 延專

(審判 [illegible]、李文[illegible]兩氏)

【前半】 普專「센터-볼」을차지하마자 好機의定[illegible]으로 [illegible] 一點四點을先取하야 [illegible] 四分에 延專[illegible] 四對四同點(이때延專 [illegible]) 兩軍中央線附近에서만 [illegible] 分에普專 [illegible] 八對四로「리-드」한後 延專더욱攻勢를取하야 八分에 永哲、相勳의「차이도숏」으로 도다시 八對八同點을 되푸리하야 [illegible] 十分까지 [illegible] 普專의 [illegible] 十點을[illegible]하야「스코어」는 十六對八로 버러지니 一時는 延專[illegible] 떠붙어 [illegible] 도러가 前半은 二十對 二十의 同點으로마치고 後半에도러가 同點도同點을 [illegible] 自民戰을演하더니 普專의「라스트·스파-트」는 猛烈하야 五十六對 三十九로 延專을누루고 凱歌를올리엇다 이로써 延專은 今年드러서 普專에게 네번째 苦杯를도 [illegible]

【後半】 [illegible] 廿二對廿(이때普專[illegible]退)으로 [illegible] 正面숏으로 廿二對廿二 同點、五分에 好[illegible](普專)과 [illegible] (延專)이 各一點을어더 廿四對廿四同點、其後延專永哲의숏으로 도다시二點을加하야 廿六對廿四 [illegible] 同十六分부터 相勳、永哲、榮大 各一點式에 成功하야 結局「스코어」는 도다시버러저가며 二十對十四로 [illegible] 하야 二十分까지 [illegible]

反	前	後	【延專】		【普專】	前	後	反
0	5	4	朴榮大	F	吳壽喆	4	4	0
2	4	8	李相勳	F	崔海龍	0	2	0
0	0	2	洪淳興	F	李好善	8	15	3
0	5	2	金碩信	C	趙得俊	2	3	0
0	0	0	方元淳	G	安昌鎬	2	10	2
1	0	0	朴寅炯	G				
0	5	4	尹永哲	G	吳[illegible]烈	4	2	0
3	19	20				20	36	5

戰後短評

먼저主催者普專支部에 一言하노니 [illegible]

比島遠征決定

拳鬪와에스링兩軍

比島體育協會로부터日本의「아마추어·레스링」파「아마추어」拳鬪選手招聘申込가 [illegible] 全日本「아마추어·레스링」協會와 全日本「아마추어」拳鬪聯盟에서는 招聘에應하기로 決定되엿다는데 派遣人員은 [illegible] 役員一名 選手는 [illegible] 級으로부터 [illegible]級까지 五名 [illegible] 選手는 [illegible] 級으로부터 [illegible]級까지 四名으로 一行總人員 十一名 一行은 十一月十七日 神戶解纜의 郵船熱田丸으로 出發하야 明年一月二十六日 神戶入港의 加茂丸으로 歸朝할豫定이라한다

京畿卓球豫選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卓球競技 京畿道豫選會는 來十八日 午前十時부터 淸凉里城大豫科體育館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競技種目은 日本式男子一般部와 國際式男子一般單式及男子一般複式戰으로 參加希望者는 來十三日까지 遞信局保險業務課 金鈺玉氏에게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八十哩遠泳을 丁抹少女計畫

丁抹의十九歲少女『제니트·칼마-스가-드』孃은 北海橫斷八十哩遠泳을 計畫中인데 橫斷『코-스』는『닷지·코-스트』로부터 北上하야『노-스·파란드』에 이르는것으로서 同孃은 이距離를 六十時間동안 헤엄(泳)칠豫定이라고 말하고잇는데 이것이 成功만된다면 遠泳의 世界記錄이 樹立될터이라한다 그리고 同孃은 昨年八月에 이미『시-란드』와『자트란드』間의 五十五哩를 三十時間으로 泳破한 女將傑이다

米國二大野球戰績

米國二大野球리-그第二十週成績은『아메리칸·리-그』에서는『양키-스』軍의 第一位는不動하야 優勝은 거의確定的으로되여잇다 그리고『내쇼낼·리-그』에서는 前週에第四位를占한『렛드』軍이 新銳投手『원더!·미-야』의 好調로 六勝一敗의 好成績으로 俄然第二位에 躍進하고잇서서 首位인『빠이레-츠』軍을 威脅하고잇다

◇아메리칸·리-그

	勝	敗	勝率
양키-스	87	40	.六八五
렛드속스	72	52	.五八一
인듸안스	71	53	.五七三
타이거-스	64	61	.五一二
세네터-스	63	64	.四九六
화이트속스	53	68	.四三八
뿌라운스	44	79	.三五八
아스레틱스	45	82	.三五四

◇내쇼낼·리-그

	勝	敗	勝率
파이레-츠	75	50	.六〇〇
렛-즈	70	57	.五五一
컵스	69	58	.五四三
쟈이엔츠	68	58	.五四〇
뻬-스	63	61	.五〇八
카-지날스	61	66	.四八〇
드쟈-스	57	68	.四五六
휠-리-스	39	84	.三一七

水災義捐金

(本社取扱)

一金二十圓也 京畿道公立商業學校職員及 生徒一同
一金二十圓也 明新學院職員及 生徒一同(京城)
一金二十三圓六十錢也 京城保育學校職員及 學生一同
一金十圓五十錢也 富川郡桂陽小學校五年生一同
一金一圓也 鄭秀鉉(市內館洞町)
一金五十圓也 京城外國語學院
一金六十七圓五十五錢也 義主中學校職員及 生徒一同
一金廿五圓廿八錢也 製藥院町中部町會(元山支局取扱)
一、衣類廿二點 李德璟(市內清運町一七五)
計 一金二百四十圓卅八錢也 衣類
一金一圓四十七錢也 鎭南浦夜學院一同(淸津府)
一金廿二圓七十錢也 牡丹江鐵道局牡丹江機關區在勤同胞四十九名(牡丹江支局取扱)
一金七十圓五十三錢也 內譯 金廿圓也(元山婦人共濟會) 金廿圓也(元山新町敎會) 金廿五圓也(元山天主敎靑年會) 金五圓五十三錢也(元山佛敎布敎所信徒一同上)
一、衣類其他六百九十三點 內譯 ゴム靴廿足(三和ゴム元山出張所) 運動靴一〇足(同) 書籍一〇〇枚(世和商店李世鋼) 衣類三七二點(元山廣石洞敎會) 衣類一九一點(元山佛敎布敎所信徒一同)(元山支局取扱分)

累計 其他七百十五點 一金五千九百十六圓卅錢也、衣類 其他一萬九千七百六十一點

◇……白熱된 延普送別籠球戰光景

曆

◀九月十三日(火曜)陰閏七月二十日◀干支戊申◀日出午前六時十三分◀日南中午後零時三十三分◀日入午後六時四十六分◀滿潮 月十二時三十四分◀月出午後八時二十八分◀月入午前九時二十四分◀滿潮(仁川)午前七時와午後七時二十分

종딱

○손때묻은 담배대하나 주머니칼 하나만 잃어도 아수한것이 사람의마음이라는데

○보험금을 타기위해선 쓰고살며 정든제집에 불노키도일수요

○천하를 엇고도 목숨을잃으면 소용이업다는데 보험금 아깨선 자살도 여반장이니원일

○황금지상(黃金至上)주의의 화학작용(化學作用)잡은 엣사람들이 지도못하엿거니와

○그중독증상의 발전이 이러듯 비약적일제는 멀지안흔 그 원인의 비약이 잇슬지라

○호열자유행이나 철해지면 검경(檢鏡)의 수고를 여기한번둘러줄일

○하긴 알고죽는 헤소병이 한두가지라고?

今日의運動

▲籠球=延專對普專送別籠球第二日 午後五時 安國町徽文小學校코-트 (場內整理十錢)

廣告

中部版

貧農에게施米
梁昌模氏의特志

【竹山】금년은 백곡(百穀)이풍작이엇스나 아즉도다수의빈농이 식량이 나기를기다리고 궁핍에허덕이는 이때 자기곳집을 앗기지안코 빈농을 보조하는사실이잇다 경기도안성군 … 씨는 자기가소유한 백미(白米)이두식 희사하야 빈농들을 보조하엿스므로 그의 은혜를 바든이들은 물론이요 일반이 그의 특지를 칭찬하야 마지안는다

府政運營의第一線
各町會總代銓衡完了
十九名은決定、十九名은未決
느저도九月中에는全部決定

부정운영의 제일선부대인 정회(町會)를 확충강화하고저 단행한 경성부의 대정회제(大町會制)에의한 신정회편성을 선정할 전형위원회(銓衡委員會)는 지난삼일의 전형위원회의 뒤에 각구정회별로 조직되여 구십이개신정회에서 전형에 당하야오든바 십이일까지에 작기삼십팔정회중대의 신청을보앗스며 그중 십구명은 부윤으로부터 정식임명되엿고 십구명은 부윤의승인을 신청중이다 전기각정회 석상에서 좌백(佐伯)부윤은 신임까지에 신정회원이 전부결정되도록 희망하얏든것이 아즉까지 절반도결정되지못한것은 그이면에 맹렬한 암와파쟁(暗鬪)으로인한 전형난(銓衡難)이 잠재하야 잇는것을표시하나 일반부민으로서는 정회개조의 진의에입각하야 참으로 정내의신망을엇은인물의 출현을 열망하고잇스며 부당국으로서도 사태를주시하고잇는중이다 그러나 느저도 구월안으로는 전부의결정을 보게될것으로 낙관하고잇다

決定된町總代

▲黃金町六、七丁目 西尾四良(印刷業) ▲阿峴町五、六區 金鶴碩(米穀商) ▲道林町西部町會(道林町二區) 李章夏(服再任) ▲明水町二、三區 小泉善治(農) ▲阿峴合町會(石町、銅雀町)木下榮(府會議員再任) ▲杏村町、峴底町 蔡錫鎮(典當舖) ▲吉野町一、二丁目 本羽六吉 ▲鍾路四、五丁目、禮智町 劉淡(會社員) ▲西大門町一、二丁目 太宰明(辯護士) ▲三淸町、八判町、花洞町、昭格町、元應常(道會議員) ▲旭町一丁目 森下孫市(再任) ▲苑洞町、嘉會町、齋洞町 西鋼祿(地主) ▲松月町、平洞町、橋南町、冷泉町 金顯寰(地主) ▲北阿峴町 金永澤(精米業) ▲薰井町、社稷町 朱榮煥(中樞院參議) ▲城北町 李[illegible](服再任) ▲鍾路一丁目、瑞麟町、淸進町、文筆玉(齒科醫師再任) ▲茶屋町、武橋町、三角町、南大門通一丁目 芮宗錫(會社員) ▲明倫町、惠化町、成元[illegible](實業) ▲光熙町 野附護一郎

申請中의總代

▲笠井町 康容[illegible](精米業) ▲弘濟町 森川萬太郞(農) ▲京義 梨花町 收山正德(鑛業) ▲內需 唐珠町 [illegible](無職) ▲鉢町 漢芹町 義州通一、二丁目 [illegible](府會議員) ▲延禧 東橋町 張泰榮(農) ▲安國 松峴 司諫町 [illegible](府會議員) ▲鍾路六丁目 孝悌 忠信町方 合榮(中樞院參議) ▲黑井 鳳翼 授恩 敦義町 蘇完[illegible](府會議員) ▲貫鐵 鍾路二丁目 李[illegible](旅館業) ▲本洞町會(本洞町) 池田長次郞(貸家業) ▲道林町東部 新吉町 西部町會 道林町一區 新吉町一區 関九[illegible](農) ▲富山 櫻井 梨花町會(同名의町) 孫[illegible](農) ▲永登浦南部町會(永登浦町一、二、三區)大隅宗三郞(地主) ▲永登浦北部町會(永登浦町一、四區)金敏植(新聞記者道會議員) ▲新吉町東部 番大方町會(新吉町一區) 番田大方町 伊藤大次郞(會社員) ▲津上道町町會(同名의町)高澤滕子(製造業) ▲栗園 履堂 益善町 沈熙澤(醫師) ▲杏村町 鷹峰町陳永與(窯業)

江華城內小學校의緊急한校舍新築
今後의裁斷을刮目期待中
山下學務課長과西島技師實地調查

【江華】강화성내소학교는(江華城內尋常小學校) 본관이 명치사십년대에 고근물이고 그밧게서 북 양교실에 잇서도 상당한연대와 기초공사의 불완으로지금히 고치지안코는 파괴와 생명까지 위험하게되엿는데 로써 학교당국은 무론하고 일반에서는 수년전부터 개축키를희망하야 오던바 지난팔월에는 개축기성회를 조직키위하야 발기인 준비회까지 성립코 당국에 보조판게등 각방면과 절충하고잇던바 지난구일오후네시차로써 급거히 경기도학무과장 산하수의(山下秀議)씨와 서도기사(西島技師)가 내강하야 현장을 조사하고 전당사를 돌아 난실에귀청 하얏든바 학무과장으로도 상당히 개축할필요가 잇다고인정하나 현하 시국판게로 인하야 무엇이라고 확실한 대답을 아니하고 잇섯모교사 동편에다 이층벽돌교사를 유력한 가량지어가지고 연차계획을세워서 매년 연할어 부흥식으로 지어나갈 의향을갓고잇는 모양이다 일반학부형측에서는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느니보다는 일시에 면민의 최근 대식근등을 세워서 학동에게 아모런지장도 업는 대개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파하가지로 금반학무과장의 현지시찰에잇서 금후 재단여하를 만흔주목을하고잇다

梨泰院三角地間에 뻐스再運轉陳情
梨泰院町有志會蹶起

【京南】국제상 회[illegible]에서는 하야 경성전기회사(京電)에서는 지난[illegible]부터 일제히 운전시설 갑회(減回)을 운전지를 단행하엿는 바 이로인하야 부내 삼각지(三角地)에서 이태원정(梨泰院町)간에 운전하든 뻐스도 정지시켯스므로 이태원방면 주민들은 국민정신총동원(國防婦人會)에서 정민유지회를 개최하고 총대성(成俊德)씨 주재로 장구히 토의한다음 지급히 정회에 부처정 민대회를 개최한다음 지정할것을결의하고 폐회하엿는데 그의 요지는 다음과갓다

陳情要旨

현재경성부내는 인구로 보아 사만삼천여명이나 집거하고잇서 나날이 교통량도 느러가고잇는데 또한 그들의생활은 대부분이 중앙정서와 관가는 딴거리에 가지고잇는 직업을로 매일 조석으로 왕래하지안흐면 아니될뿐이고 또한이곳은 군대(軍隊)의 요충지로 비상시국인이때 그들의 활동은 이며 일편 이태원정 선남동 조금도 거를이 업서야할 처지 학교(城南中學校)로 통학하는 중앙지대의 학생과 경남에서 중앙지로는 다니는 학생들의수 가 실로어정나게만흔데 경전 에서는 갑자기 감회도하지안코 운전정지를 시켜버리엿스니 회사측에서도 응당히 이방면을조사한다음 아침과 저녁 출근 (出勤)과 퇴근(退勤)시간만이라도 운전해달라는 진정이라한다

秋期清潔法施行
鍾路署와西大門署管內

시내 종로서와 서대문서관내의추기청결법시행일할은 종로서구할구역은 구일부터 이십이일까지 서대문서 십구일부터 이십일일까지로 각각정하얏는데 상세한것은 다음과갓다

鍾路署管內

九月十九日—南大門通 瑞麟町一一九二 仁寺町 鍾路二丁目三一一〇一 樂園町 敦義町 鍾路三丁目—一八〇 貫鐵町 觀水町 長沙町 授恩町 鳳翼町 薰井町

九月二十日—八判町 三淸町 花洞町 昭格町 寬勳町 安國町 堅志町 松峴町 勸農町 雲泥町 益善町 臥龍町 苑西町 桂洞町 嘉會町 齋洞町 慶雲町

九月二十一日—唐珠町 西大門町一丁目 西大門町二丁目 內需町 都染町 瑞麟町九三一一六九 淸進町 光化門通 鍾路一丁目 中學町 壽松町 司諫町 公平町

九月二十二日—宮井町 新橋町 孝子町 淸雲町 玉仁町 通義町 樓上町 樓下町 體府町 昌成町 通義町 積善町 內資町 社稷町

西大門署管內

十九日—觀水町 峴底町 杏村町 梅南町一部 玉川町 天然町 北阿峴町 平洞町 冷泉町

二十日—竹添町 橋南町一部 礼[illegible]町 一、二、三丁目 峴底町 月町 桃花町一部

二十一日—葉町 蓬萊町一、二、三、四丁目 中林町 和泉町一、二丁目 阿峴町 漢江町 西小門町

(原文不詳部分省略なし)

名勝地清掃工作
지난十日古蹟愛護日에

【開城】지난십일은 고적애호일(古蹟愛護日)을 당하야 고려조반천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개성에서는 이날하루 동안 게 마지하게되엿다 학교생도 관공서원등 무려만여명이 동원 되여 선죽교(善竹橋) 경덕궁 (敬德宮) 관덕정(觀德亭)남대문(南大門)홍양서원(崧陽書院)박물관(博物館)개성신사(開城神社)의 부근을 깨끗이 소제하며 선조의 유산을 애호보존하는 정신을 동경하였다 그리고 이날 정오를 시에는 각학교장과 생도의 대표 가 서장에 모여서 교장회의를 열고 고적애호에대한 좌담회로써 회기애하가운데 선인을 추모하는 정서교육의 과대한바잇섯다

兒童의馬權報國

【京南】군관 정성으로 제일선에서 분투하는 우의가 기다리는 학교에서는 새로 고인들 무엇의 용사 에게 마음을 먹고 위문할 시사 마서 최근 대[illegible]을 보내기위하야 잇는데 그의 생활고에 의하야 우리의 반도를 구하야 ... 가고시키고잇다한다

食鹽실은木船破損
船夫二名도溺死
仁川近海의暴風으로

【仁川】풍랑으로 식염선은 복체파손—지난구일오후여섯시경 부천군남동리 염전(鹽田)제일호부근 리(里)에잇는 염전(鹽田) 남동리[illegible](富川郡南洞面南洞里)에잇는 염전(鹽田)제일호부근 해상을 항해중이든 인천부도조 (福島組)의소속본선 북도환(福島丸)이 풍랑으로 파선되자 그배 에탓든 선부두명이행방불명이되 엿는데 이급보를접한 인천서에 서는 시체수사에 노력중 십일 일오후 아홉시경에 전기임천근 방에서 시체가표착한것을 발견 하고 검시한결과 전기선원으로 의사한것이 판명되엿는데 그선 부의 현주는 금포군양촌면양곡 리(金浦郡陽村面陽谷里)에잇는 황룡목(黃龍?)씨(四七)이며 또한명은 개풍군흥교면 (開豊郡興教面)...에잇는 선부 리영식(李榮植)(?)으로 아즉것 시체를 발견못하엿다하며 그피해액은 선 백원 합이천원의 피해를보앗다한다

開城人蔘祭의
遊興節次廢止

【開城】삼도(蔘都)개성에서 년중행사로 성대히 거행되든 인삼제(人蔘祭)는 금년은 시국판게로 모든 유흥절차는 폐지하고 오직 이날을 기념하기위하야 지난구일밤여덟시에는 인삼판게자 이백여명의 인삼인사(人蔘神社)에 모혀 전야제(前夜祭)를 드린후 그이튼날오전아홉시에는 본제전(本祭典)을 엄숙히거행하엿고 그리고 일반부민에게는 이날이 인삼제일이란것을 알리기위하야 노프[illegible] 소리로 시내를 울려노핫다

古都開城의秋夜에
待望의音樂大會
玄濟明、劉芙蓉兩氏의出演
本報開城支局後援

【開城】본보개성지국후원과 남 본정청년단(南本町青年團)주최로 오는십육일 오후팔시 추기음악 대회(秋期音樂大會)를 개성좌(開 城座)에서 개최키로되엿다 연사 는 악단에 명성이노픈 현저(玄 濟明)씨와 여자(劉芙蓉)씨라는바 개성 부(府)를울리는 유씨의 고아(高 雅)한 "앳"(?) 양씨의 고아 한 음악예술의향기를 그리워 하는 만원의 대성황을 미더의심치안 으며 현씨의 풍부한성량(聲量) 과 유씨의 아름다운 음색(音 色)은 만당청중을 감격과 도취 속에 사로잡고야 말것이다 그 리고 송도중학(松都中學)과 호 수돈고녀(好壽敦高女)의 특별찬 조출연이잇서 더욱성황이 예상된다

開城
秋期音樂의밤
△時日 九月十六日午後八時
△場所 開城座
◇主催 南本町青年團
◇後援 朝鮮日報社開城支局

梨泰院中部町會에서
水害義捐金募集
廿五圓을京南支局에

【京南】삼천리산하(山河)에 떠러 저내홍수(?)로 가치마지 구제금품을 거더모흐것이 이십 오원이십팔전에 달하야 이를본 한 본사경남지국에 의뢰하엿는 데 의연자의 방명은다음과 갓다

梨泰院町中部町會義捐者芳名

成金南一圓 李濟源五十錢式 鄭昌晩 黃炳起 金炳熙 崔瑞九 李小成 李相玉 金春成 吉田傳次 長谷川氏 李教昌 山部氏 渡邊氏 中原氏 岡野氏 德能滿 三十錢式 金益煥 金永植 鈴木鐵一 閔明伊 金漢植 二十錢式 鄭貫一 崔鳳壽 張凡山 金化榮 金長幸 孫昌福 吳喜滿 金一成 鄭英仁 林鎭 樺伊 徐基鋸 金鎭南 金命吉 徐相天 朴允祚 池顯甲 張興律 金鶴伊 林春根 二宮氏 津本氏 下元氏 黑岩氏 小野氏 李學吉 田村氏 韓富熙 金鎭信 李大鎬 金聖永 金在萬 洪淳漢 李用三 鄭鍾祚 朴用權 鄭順泰 鄭光泰 鄭在順 李得天 張山伊 金甲林 石昌錫 成有德 李山 張乙俊 宋銀哲 韓鳳壽 金炳浴 朴用桂 張應用 李德完 安應浩 禧敬九 松井茂 吉田 金福鳳 金光元 金顯利 洪寬吉 金泰石 金命順 高謝錫 德幸 金泰玉 鄭小先 李聖煥 李永斗 田淵 金湧德 梁日晩 梁文石 金鍾哲 崔洪烈 十五錢 金大弘 十錢式 徐明允 梁秉武 朴天弘 梁在石 金漢山 成德萬 朴興根 梁順福 河成鶴 方順伊 李延實 黃炳誠 延吉福 金和岩 李點元 李蓋春 成千萬 金吉男 李福萬 申相旭 金鍾元 崔敬德 辛在成 朴用順 梁泰幸 鄭順哲 鄭萬福 五錢式 李春和 金明鉉 金九英 申基俊 梁守宗 金明振 李達世 李應俊 尹宗成 李鍾德 張華山 田敬福 劉永煥 成五奉 梁承亮 金日東 金明學 李英春 李相丁 梁守萬 朴守福 姜相福 張福用 全泰植 鄭點石 李聖三 徐相弼 金學童 梁銀用 趙老馬 李寶弼各五錢 吳榮鐸十五錢 八錢式 吳昌燮 池來烈 黃寅鍾四錢 合計 二十五圓二十八錢也

地方人事

▲吉木善介氏(同上)
▲金東勳氏(仁川商工會議所副會頭) 新任人事次本報仁川支局來訪

우리洞里通信

壽松小學校뒷문아페 새로노힌넘적한다리
面目을一新한附近一帶新作路

삼청동(三淸洞)꼭대기에서 내려오는물이 중학정(中學町)을 거처 광화문통(光化門通)과 청진정(淸進町)을 여페끼고 청계천(淸溪川)으로 빠져흐르는 넷 물을 장원서개천(掌苑署川)이라 고 일커른다 이내청이흐르는동 안에는 수만흔 돌다리와 나무 다리가 잇섯다 더욱 별리정다운 경 이다리에는 주석물레에 외아이들이 쉬어가는 나무다 리가 풍부파들을 에때고잇서 아이들의 보행이 위험하기짝이 업슬뿐더러 여름에도 밤거지기 는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엿다 그러든 청진정다리가 지금은기 리오십미돌에가까운 널분마당다 리가노혓스니 수송정소학교(壽 松町小學校)뒷문아페 다리가 즉 이다리이다 면대전한 하드래도 처진경서 광화문통거리로 통하 는 출다란 도로를 세워노흐 다란 나무다리에 지나지안흘것 이 지금은 널분세멘트다리가생 겻을뿐아니라 길꿈지 벽돌까지 사람하나 겨우다니든 그전벌화 전문학교앞골목이 지금은 자동 차 마차가 곤일사이없이 왕래 하고 저녁때가되면 통리어린아 이들의유희장이 되여잇서 서울 에 한이자랑이되고잇다

(사진은 새로노힌다리)

들까부는뻐스 길좀곤처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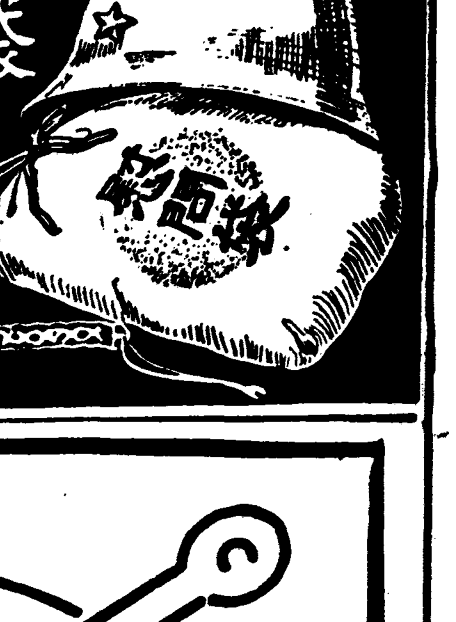
내가 뻐스를 타고 가다가 조와서 좀기조흠 타는데 이것도좀차에 라는것이아 비 가옷는이 그중만히 곤히진 서 어"코—쓰"의 자동차손재 불안하리지경이던만이요 시내에 끼기는통에 끼리일졸하면 목이 예실러 감것갓다그게무소리나 고요? 길이울퉁불퉁하야 차가 들 다가기전에갓가운 대학병원 보다 종로오정목이나 창경원아 주머니나마 얼어서뻐쓰라고라 지 기다리는수밧게업지만 언는 지만 잡안드려주니 어느시기까 러먼 경전(京電)당국에 말하엿 이크다 이것은통리어룬들에 여 구제(二區制)가되어 생활상태적 까지나오니 "폐쓰"를려라면 어 들것으로 살기가어려워서 이곳 부근으로 나온사람의 처지와가 으로 나온것이 아니요 근년에 데로 오느라고 돈안쓰(?)마당에 니라 매달리니까그러케되는것이 랍니다 그러케까불어서야 어디 부인네들이 탈수잇슴니까 경전 이여 드러오는것을 통채로삼키 지말고 길좀고처줄수업소

(敦岩町K生)

讀者出題歡迎

▲內容 각기동리마다변해가는 사정 고처야할것 희망하는것 새로운사정등 여러가지의통신 을보내되 인신공격은 피할것 (지상의명은자유)
▲枚數 관계업서며하되 통신 하는동리 주소씨명을밝혀서쓸것
▲送附處 본사에서 지방부로 우리제통리통신(?)과로보낼것

胃腸・肺・肋膜藥
戰勝丸 전승환



戰勝丸의主治効能
胃病、腸病、胃腸加答兒、消化不良、胃擴張、胃酸過多、胃痙、胃弱、嘔吐、便秘、肺結核、肺炎、肋膜炎、肺尖加答兒、氣管支炎、氣管支加答兒、袪痰、咳嗽

定價表

八十粒入	金壹圓
百七十粒入	金貳圓
二百八十粒入	金參圓
五百五十粒入	金五圓
千二百粒入	金拾圓

登錄商標 明治四十年二月二十三日

配給所 京城府黃金町六ノ二九
本舖 浪速製藥株式會社 大阪市天王寺區上本町八丁目 電話天王寺二七二八番 振替大阪四一八六一番

胃腸이弱해도살로가는滋養
葡萄糖果糖이豊富한純良葡萄酒

●食前에 잡수어주십시요 赤玉ポートワイン이 가진純良葡萄酒獨特한芳香佳味는 舌神經을 快適하게刺戟해서 食慾이 나게하고 食事를 맛잇게합니다

●또 消化液의分泌을 旺盛케하는 作用도잇스므로먹은飮食을 살로가게합니다

●그뿐아니라 赤玉ポートワイン自體도 滋養이되야 살로갑니다

●그中에 榮養主成分인葡萄糖、果糖은 에네루기ー가되는 榮養素中가장純粹 秀한것으로서 胃腸에 何等消化의負擔을주지안코 容易히吸收되는故로 胃腸이弱한 사람에게는 大端히조숨니다

●이外에도 血과骨格을기루는 鐵・칼슘도 消化吸收되기쉬운 形態로되여잇슴니다

●赤玉ポートワイン은胃腸이弱한 사람에게는말할나위업는 滋强料입니다

赤玉ポートワイン
적옥포도와인

長篇小說 薄命 (97)

韓龍雲 作 鄭玄雄 畵

색주가 四八

숙자는 집에 도라오면서 순영이게 대한일을 여러가지로 생각하엿스나 아모래도 곡절이잇는 일이어서 단순히 순영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엿다 그리하야 집에가면 위선 순영이를 위문하고 자세히 무러보는 동시에 기집애들을 단달하야서 사실의 진상을 드러내라고 하엿다 그리하야 숙자는 순영이게 너무 흉독하게 한것이 후회도 나고 기집애들에게 속은것이 아닌가하는 추칙으로 분하기도 하엿다 조치못한 기색으로 집에 드러가는 숙자는 뛰어나오면서 정다웁게 인사하는 기집애들에게는 대답을 하는둥 마는둥 하고서는 바루 순영이 방으로 향하엿다 숙자는 부드러운 마음과 화평한 기색을 지으면서 아직 누어잇는 순영이를 위문하랴는으로

『에그 순영이가 좀 어떤가』

하면서 미다지를 열엇다 순영이가 누어서 모옹 알코잇서

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업다 칙간가튼데를 갓나하고 생각하엿스나 자리까지 개여언진것으로 보아서 그런것도아니엿다 숙자는 마음이 선듯하엿다

『애들아 순영이 어디갓니?』

숙자는 성으로 쪼처나오면서 무르렷다

『모르겟서요 아까 가깝하다고 나가서 바람좀 쐬겟다고 나갓서요』

산월이가 대답한다

『옷을입고 나가던?』

『일어나서 머리를 빗더니 옷을입고 새신발신고 그러고나갓서요』

『뭐 보퉁이는 안가지고 갓니?』

『아무것도 들고 나가는것은 못보앗는데요』

『이부자리는 제가개노핫니?』

『이부자리는 개노흔것은 모르겟서요 나가는것만 보고 나간뒤에 방은 안드려다 보앗서요』

『그럼 어디를 갓슬까 몸도주스룸만하게 나섯니?』

『어디가요 어제저녁까지 알튼소리를하고 아침도 안먹엇는데요 그러치만 속으로는 판게찬흔것을 꾀병으로 알튼소리를 햇는지도 모르지오』

산월이는 한번 지비뜻는다

숙자는 다시 순영이 방으로가서 휘휘 둘러보더니 순영이손그릇을 여러보앗다 그속에는 드러잇슬만 한것이 그대로 드러잇섯다 숙자는 허둥지둥 나와서 자동차를 불러라고 하인

전 정거장으로가서 순영이 종적을 무러보앗스나 게서는 그런아이를 못보앗다 한다 숙자는 다시상인천정거장으로 가라고하는 다가몰처 생각하니 순영이가 만일 도망을 하얏스면 자기의불슬이가 만무한일이죠 정거장에 것을 오수들이 그대로 두고갓게인듯 하얏다 그리하야 바다가서 차지라고 하는것이 망까으로 발며발며나가면서 무러봉쪽 그런아이가 월미도쪽으로 가더라고한다 숙자는다시자동차를모라서월미도로달렷다 그때는 해수욕도 시작이 안된때라 사람들의 내왕이 별로만치못하고 다만 봉울 차저다니는 청춘남녀들이 쌍쌍히거를기도하고 섯기도 한것을 볼뿐이엿다 숙자는 자동차를 세우고 눈이 바뿌게 차저보앗스나 순영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하얏다 숙자는 순영이가 오던마트로 바다에 빠저죽지나아니하얏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자못 초조하얏다 숙자는순영이가 만일 자기의 흐득한매를 못이겨서 애매한 누명을 들서쓰고 원통하게 죽엇다면 가엽기도 하려니와 죽어혼이 원귀가되어서 자기에게 원수를가푸면 어찌하나 하는 애매한 사람각도 나고 또는 애매한 사람을 죽엿다고 부처님이 죄를주서서 지옥으로 가게되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것잡을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해변으로 갓다가 산으로올라갓다가 이쪽으로 오다가 저쪽으로 가다가 미친사람 헤매드시 땀을 흘려가며 도라다녓다

明治座

디ー트리히·보아예의 "沙漠의花園"과 大船映畵의 "希望에선다" (九月十二日부터)

시내명치좌(明治座)에서는十二일부터 디ー트리히와 보와예주연의 사막의화원(沙漠의花園)과 上原謙 ... 主演의 ... 希望에선다 ... "沙漠의花園"은 再上映天然色영화로 현세를떠나 사막에서 매저진 두사람의사랑이종교때문에파멸당하는비극이다 "희망에선다"는 평화스러운시골에일어난 사건을취급한것이다 (사진은『사막의화원』의한장면)

極光映畵社에서 助監督 硏究生募集

『燈火』를 제작한 극광영화제작소(極光映畵製作所)에서는 이제다시 제이회작품 제작을 압두고 연출부(演出部)와 연기부(演技部)를 확충하기위해서 전문학교졸업정도이상의조감독(助監督)지망자와 중등학교졸업정도이상의 희련을가진 남녀배우연구생을 모집한다는데 조감독지망자는 二十五일까지 이력서 배우연구생지망자는 이력서와 사진을 二十五일까지 다음주소로 보내기를 희망한다고한다

京城府鐘路一丁目漢陽빌딩 相光映畵製作所

"路傍의石" 고보를試寫

이 映畵는 일직히 『眞實一路』와 『五人의斥候兵』의力作을내노아 日本監督界에 堅實한地盤을 가지고잇는 田坂具隆氏의監督作品이고 原作이또한 『眞實一路』로써 最近日本文壇의長篇小說界를 획출한山本有三氏의것이니만치 封切되기前부터 物議가 만헛고期待가 컷다

『路傍의石』的存在인 主人公 吾一少年이 暗澹한運命에 嘲弄을바드면서도 굿센意志로써 一步一步前進을 꾀한다는것이 이作品의 테ー마이다

吾一의아버지는 어머니와그를 내버려둔채 어디론지 오래동안行方不明이 되여잇스므로 두사람은 封套부치는內職을해가며 한편家主인 稻葉屋書肆의主人秦吉이의 援助로僅僅히 구차한貧民窟生活을 하고잇엇다 그리자 吾一이는六年生이되야 어떠케든지 中學校에를 갈려고하나 어머니는 눈물로써 집안事情을 吾一이에게말해주며 그생각을 斷念하라고哀願한다 그것을 잘아는 次野先生은 吾一이의同情者인 秦吉이와 議論해가지고 吾一이를 中學에 너허주기로 한다 吾一이는깃붐으로 가슴이 터질듯하엿다—그러나 거기에 공교로히바람가티 나타난無賴漢인 아버지 庄吾때문에 吾一이의모든希望은 또다시 단번에꿈가티 흩때나러 버리고말엇다。

그리하야 吾一이는 學校를 卒業하자 곳 그거리에서 第一큰 吳服店인 伊勢屋에『전방아이』로 되여간다。거기에선 次野先生이 놀자기의『吾一』이라는 일홈을『내가 世界에서 第一이다!』라고 解釋해주며 稱讚해주든 그일홈까지『五助』라고 고처불리우게되며 自己同伴들이엿든 主人아이들에게도 一一히『도련님』『아씨』하고 불으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한편 한번 나타낫든 아버지는 또다시行方不明이 되여버리며 어머니는 心勞가 極甚한나머지 病에걸려 秦吉의好意로 入院을하게된다。그때 다시不良輩의 아버지가 나타나 어머니와秦吉이의사이를 誤解해가지고야 단홀진다。몹부칠꼿을일흔 어머니는 그길로 投身自殺을하여버린다。이에 어머니를 일흔吾一이는 정든故鄕을 등지고 아버지가잇다는 東京으로 가게되엿다。그러나 東京의生活도 시골의『전방아이』生活에 조금도 떠러지지안는 勞苦와 屈辱의生活이엿다。그러나 吾一이는 이生活에 지질아헛다。그는 니를 가로물고 이生活을 박차며 나아가는것이엿다。……

이것이 大略이作品의 스토ー리인데 山本氏의作品은 언제나 어떠케살어나가느냐?하는 모랄을 現代의生活苦의問題에連繫시켜서 우리들에게가르켜준다。그러므로 그모랄은 常識的인것이고 現實的이고 또한健全하다。이作品가운데서는 神秘的인深奧한맛보다는 條理에찬健全한생각과 行動이 描寫되엿다고볼수잇다。

이런地味한 異色을띤題材를 田坂氏가 果然어느程度에까지 肉迫해나갓느냐?하는것이 問題인데 나는이映畵를보고 實로놀랍게도 成功한力作이라고생각햇다。田坂氏는여기에서 아모런새로운技巧를 부리지안코 오로지誠實한態度로써 原作者의 健全한생각과 行動을 고대로 따러갓다。이態度는『眞實一路』의 態度와 거진恰似한것이라고할수잇다。田坂監督만이 아니라 撮影者와演技者들도모두 誠實한態度로써 一貫하고잇는것이 自然히컷든마다 나타나잇다。

主人公 吾一役片山明彦少年의 天才的演技에 우리는 놀래지안흘수업슬것이다。그의 놀라운演技는 不運한環境에 눈물겨웁게허덕이는 吾一이 一步一步압프로나가는 『레알』한演技에는 누구나感淚할것이다。굿센意志에서나오는어린 反抗心에서鍛鍊에매여달리는 場面이라든지 어머니가 도라가섯다고해서집으로뛰처가다가 막난히아버지를보고 그대로뛰처들아가는場面이라든지 마즈마 東京집에서 『람프호야』를 내던지고집을나가 끌로길에서 거리로사라지는 場面가튼것은 참으로 훌륭하엿다。그우에 어머니로扮한瀧花久子의 沈着한演技(특히 吾一이가 잘못부친封套를 보고도욕을 안하고 되려우는 吾一이를 慰勞해주는 場面가튼것)와 井染四郎의 秦吉이 諸學生의 江川宇禮雄等모두조흔演技를 보혀주엇다。그러데 아버지로扮한 山本禮三郎의그 時代的인 無賴漢의 性格이좀 어쩐지 不足한 感을주엇다。

아마이것은 무엇보다도監督의責任이 클것이다。그러고또 次野先生役의 小杉勇의 演技도 너무나 文學靑年의 냄새만풍기는것이別로 조흔感銘을못주엇다。그러고 또한가지 나는 이作品에서 其中重大한 失敗를한가지들추어내자면 이作品의時代的 背景인 明治三十六年度에잇어서의 어떤轉換期에 부닥치고잇는 當時日本의社會的情勢가 퍽 微弱하게스리바게는 表現되엿다는것이다。

이特殊한 雰圍氣를 좀더잘 그렷드면 吾一이의 性格도좀더 明瞭하게 힘차게 그려질것이라고 생각된다。또한 아버지인 庄吾의 비ー뚱어진 無賴漢의 性格도 그때 그社會的인 連關미테서뿐 잘그려내수잇섯슬것이다。그러나 이問題는 이映畵가 文部省과日活의 共同企畵에서 오는 原因이 아닐가 생각한다。

이映畵는 日本映畵에서는優秀한地位를 차지할 力作인것은 事實이요 한번보아둘必要는넉넉히잇슬것이다。(寫眞은 ...)

이映畵는 十四日부터 市內黃金座에서 파社作品 『新郞은夢遊病』과 『宮本田』과有道通男의 애튼레손과 同時封切

라디오 JODK

『雅樂』 (十三日後八、三〇) —李王職雅樂部에서中繼—

一、其壽永昌之曲

이곡은 지금으로부터 육백년전에 고려조(高麗朝)때의것으로 궁중연례(宮中宴禮)때 연주하든것입니다 쓰는악기는 아쟁(牙箏)과 필률(觱篥)입니다

二、五雲開瑞朝

이곡은 지금으로부터 오백년전 이조세종조(李朝世宗朝)때된곡으로 역시궁중연례때 연주하든것이며 대쟁(大箏)과 가야금(伽倻琴)의 두현악기로만 연주하는것입니다

三、瑞日和之曲

이곡은 지금으로부터 육백년전 고려 때의곡으로 왕이 동가(動駕)하실때 연주하든곡으로 필률 대금(大琴) 당적 (唐笛) 해금(奚琴) 아쟁으로연주합니다

라디오드라마 南行列車 —馬太夫作— 響友會 (十三日午後九時)

配役 車掌 孫一平 老人 朴齊行 婦人 申銀鳳 아해 趙美鈴 女學生 申카나리아 老婆 卜惠淑

◇…남쪽으로 남쪽으로 달리는 남행열차(南行列車)에는 제각각의 생각을 가삼에안고잇는 여러인생(人生)을태우고 그궤도(軌道)를 돌진하고잇습니다 그차속은 그대로인생의 축쇄판(縮刷版)입니다 그안에서는 엇더한인생이 전개될는지 우리의흥미는 그곳에집중(集中)됩니다 우리는 그허다한 승객중에서 특히흥미를 끄는여섯인물에 『스폿트·라잇트』를 빗최여보기로하겟습니다 노인, 묘령(妙齡)의부인, 아해, 여학생, 노파들이 그들입니다

라디오푸로그람

十三日 (火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歌謠曲 (레코ー드)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가을花草와傳說』 中央中學 安在駿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 (國語) (豫備日)
◇同六時 이야기『乃木將軍의逸話』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金麟洙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가을의古都이야기』(三)『慶州』 中東學校 司空桓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文藝와現實生活』 城大 金晋燮
◇同八時 京畿歌謠 一、遊山歌 二、제비歌 三、執杖歌 四、孔明歌 黃順子 姜桂月
◇同八時三〇分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其壽永昌之曲 二、五雲開瑞朝 (続樂) 三、瑞日和之曲 李王職雅樂部員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라디오드라마(京城) 『南行列車』—馬太夫作 配役 車掌 孫一平 老人 朴齊行 절믄婦人 申銀鳳 兒孩 趙美鈴 女學生 申카나리아 老婆 卜惠淑 病人 金元浩 演出 金響友會 效果 崔晃一 노래 張世貞
◇同九時 라디오小說(平壤) 『가을과山羊』—李孝石作 方淑姬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正午 (城)獨唱
◇午後六時 (東)詩吟

十四日 (水)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양진』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獨唱 (레코ー드)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것가을의化粧』 趙福安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續) 語』(豫備日)
◇同六時 獨唱 一、가을바람… 二、고향생각… 三、가을밤…洪蘭坡作曲 四、꼿새…草川信作曲 五、고향의봄… 六、달마중…포ー레스트作曲 七、고향의메가…헤이스作曲 八、고향하늘…朴泰俊作曲 九、고향생각…도나作曲 피아노伴奏 崔寧鉉 鄭致煥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가을의古都이야기』(四)『扶餘』 普成中學 姜在鎬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現下의支那事變과도는列強』 徐椿
◇同八時 (伯林으로부터) 日本新聞使節團日獨國際放送 一、應援進曲 와ー그너ー作曲 二、人事 三、序曲『레오노ー레』第三 베ー토ー뻰作曲 日本新聞使節團長 東武
◇同八時三〇分 野談『金雁』 張志浩
◇同九時 京畿歌謠 一、豐年歌 二、방아打鈴 三、梁山道 四、興打鈴 五、靑春歌 任彩鳳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細笛 姜鎬洙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一)
◇正午(東) 物語
◇午後六時 (大)童話劇
◇同六時二五分 講演(自哈爾賓)
◇同七時三〇分 (東)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國際放送
◇同八時三〇分 (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 (東)漫談
◇同九時 (大)浪花節

◇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道路에對하야』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 水宮歌 鼓手 丁元燮 金綠珠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京城) 一、卽興曲 作品一五二番 슈ー베르트作曲 二、夜曲 三、練習曲 四、同 五、同 ◇同八時三〇分 合唱—宗敎音樂 (平壤) 一、讚美合唱 二、聖歌合唱 …作曲 五、聖歌合唱 六、主의뜻 七、여호와나의목자 에쉬포ー드作曲 ◇同八時五〇分 野談 玉에도리 ◇同九時一五分 時調 朴一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李完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
◇正午 (城) 講談
◇午後六時(東) 이야기
◇同七時三〇分(大)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合唱
◇同八時四〇分(大) 箏曲
◇同九時一〇分(大) 義太夫

九月十五日 (木)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生메모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輕音樂(레코ー드)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冒腸炎이야기』 醫學博士 金晟鎭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劇『시집가는할아버진』 旺新童友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作파指導 金泰哲

新秋對戰 國手爭覇譜 (2)

白 盧史楚
黑 任佑植
(込出四目半)

參考圖 附圖

● 七 卯의十六
○ 八 丙의六
● 九 戊의二

黑軍이中央에無心하고 邊隅에 만戀戀타

三玄子

黑七 卯의一六은 熟考한打點이나 이미四隅에 布陣되얏스니 白을追擊하거나 그러치안흐면 어느追擊에 應戰하는것이正當한手順이어니와 이제黑은 先手로서 兩家의追擊을 合하고잇스니 追擊을 開始하는것보다 어느追擊에 應戰하야 이미 點해노흔地盤을 安保하는것이 올코 또追擊에 應戰함에는 緩急을 밝힐必要가잇는데 白六은 右邊上隅의中庸基點에對하야 己의三으로 小斜走掛馬하지안코 辰의 三에두어 大斜走 掛馬하고 잇스니 追擊의手法이 緩和한者이오 그와反하야 左邊下隅의底目基點에對한 白四는 目外基點으로 追擊하고잇스니 이에應戰치아니하면 白이辰의一六에두어 黑의底目基因을 包圍하야 자못 形勢가 急迫할것이다 그러므로 黑七은먼저底目基點에對한 追擊戰에應戰하야 卯의一六으로 小斜走하엿는대 그것은 右面및 中央으로 發展함에잇서서 조흔基點이 될뿐만아니라 白四를 巳의一四로 包圍하는 基點으로해서 또한조흔자리가 될수잇다

白八 丙의六은 우에서 말한바와가티 白四가 包圍의威脅을 當하고잇스니 이제 그를救하다하면 右邊上隅의追擊도 反擊을當하야 隔手無謀의基盤을 犯할念慮가 업지아니하니 左邊下隅는 도라보지안코 右邊上隅의 中庸基點을左右로 挾擊하엿다 決戰에勇敢한高手의手法은 이러하다 그러나 黑九 戊의二에對해서는特히 一言必要가잇다 다른 社會의高手들은 譜와가튼 陣形에잇서서 黑九를 대개丁의六에두어 白八을 바더가지고 그의中央發展을 阻止하고 譜와가티 戊의二에두어 邊隅를 經營치안는다 그러면 그러할 에 邊隅에 繼續할보다 中央으로 發展하는것이 큰것은 말할必要도업다 그러나 朝鮮의高手들은 대개譜와가튼 酬應을正當한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니 좀더 研究해볼 必要가잇지 아니할가 그리고 黑九를 丁의六으로바드면 別圖와가티 白이變化한다 圖示白五 丙의五에對하야 黑이 丙의 四로바드면 附圖가티 怯이되야黑이 죽는다 그리고 附圖黑二 乙의四에對하야 白이乙의五로답이 內의七로끈어 黑白이各生하고 그우에 黑의外勢가 擴大되니 別圖와가티 丙의八로 虎口를짓는것이올라고 생각한다 또附圖黑七이 戊의三으로 자치 白으로하야곰 己의四로 나가게하면 邊隅의黑軍은 살지마는 中央에서 끈어진黑三點이 死線에 嘔啞되야 一層 不利할것이다

慰安と修養を兼ねた國民雜誌キング!戰線にも銃後にも輝くキング!

特別附錄 尊皇愛國詩集 德富蘇峰選

キング十月號 大々評判

面白くて爲になる!キングの記事は激勵の滋味!

傷つけとなほ 現代名士苦鬪傳記 齋藤正男 陸軍の明星 石原莞爾少將 文壇の驍將 竹田敏彦氏 通信界大立者 岩永裕吉氏

銃後國民の活動と生活を語る 世界大戰當時に於ける各國

限りなき心の力……(松原致遠) 隨感隨想…諸名家執筆 時事問題早わかり…田正孝 面白い猛獸境の話… 奇拔・痛快・珍らしい話… 家鄕より出征軍人に送る手紙

感激美談特選集 銃後美談 勇士の父…狩野 水害美談 瀧本訓導…大谷竹雄 純情美談 愛馬美談…小島 眞助

人間成功の基礎 片倉製絲社長 今井五介 私の處世三信條 貴族院議員 水野錬太郎 佳話・珍話・名士の面影 中等學校長の處世訓人生訓

面白いトテモ面白い!キングの小說は最上の慰安!

長篇に讀切に、面白いこと天下無類の力作大作ぞくぐ集まる、キング小說陣

現代小說 愛憎の書(菊池寛) 時代小說 魔粧佛身(吉川英治) 事變小說 老從軍記者(諏訪三郎) 現代小說 日本の妻(竹田敏彦) 武勇講談 斑鳩平次(神田越山) 新作落語 水見舞(金原亭馬生) 股旅小說 駒下駄道中(原巖) 探偵小說 双假面(横溝正史) 諧謔小說 嫁取り双六(佐々木邦) 時代小說 浮名紅梅(川口松太郎)

滑稽小說面白くらべ 求婚破婚 戀愛修整臺(弘木丘太) 嬉しく恥し 鰻と戀人(岡成志) 珍妙無類 譽の風呂桶(伊馬鵜平) 銃後風景 同情無用(鹿島孝二)

讀切小說傑作集 嬉しき師恩 犬と寢る兒(谷崎精二) 悲痛可憐 飯能戰爭(平山蘆江) 女の意地 パラシュートの女(淺原六朗) 涙の股旅 兄弟がらす(小山寬二) 珍型悲劇 新妻の夢(鹿島孝二) 海洋哀歌 唐船漂着(日黑葵男)

雜誌週間記念 大奮發!この外面白い讀物ギッシリ滿載 お求めはお早く 大定價 六十錢

平壤 大劇 十二日より特別封切(二日間) ユナイテッド·アーチスツ社超大作キング·ヴィドアー監督 結婚の夜 ゲーリー·クーパー アンナ·ステン 主演 二十世紀フォックス キング監督大作 ヘンリー! 第七天國 シモーヌ·シモン ヂェームス·ステュワート 主演 横濱シネマ超大作 銃後の父より 國民進軍譜 第一回作品 京日ニュース アルプス征騎隊『祖國の爲めに』改題

新富座 京城新富町(電話本局五六七七番) 九月十二日부터十四日까지三日間 日祭祝日晝夜二回開演 平日晝間正午부터六時까지 毎日夜間一時夜間七時三十分始映 ◇時實ニュース ◇東寶映畵社作品 超特作 時代活劇 里見八犬傳 前後篇 監督 後藤昌信 主演 嵐寬壽郎 泉清子 河原市太郎 上田吉二郎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假面ノ人 監督 리비트후와드 主演 조ー 브라운氏 次週勝興新撰組 女俠客玉川お芳 予告 結婚の夜 グレイトガイ 春香傳 ボレロ 藤十郎の戀 テンプル軍使 密林の王者 晚の覆名期待 (十五日부터七時十五分始映)

映畵は日活 借樂館 十一日特別封切四日間 ワーナ社大作 マイケル·カーティズ監督 黑地獄 ポール·ムニ主演 全山五千の炭坑夫 一萬五千の家族の爲め 敢然起つたジョオ·ラデック 悲壯な救援の仲間へ 死を捨て身ぶ ... 日活超特作 修羅山彥 前後篇 片岡千惠藏主演 朝日ニュース パテニュース 三十錢均一

桃花劇場 京城府桃花町 電龍一三三三番 劇團靑春座公演 九月十日밤부터(七時十分開演) ◇上演名劇……林仙圭作 『貞操城』三幕六場 女子의貞操는古今을通한그네들의生命이다。여기에对인貞操의鐵城은엇더케保障되엿는가?보라!名劇이보혀주는貞操의敎訓! 外『名譽劇』同時上演 ▲次週斷然上演▼ 李瑞求作 『봄』(春) 四幕 雄大한『스켈』속에보혀주는現代生活의날카로운斷面을그린人生悲劇이明日부터『봄』이라한이悲劇속에는明日의幸福을約束하는慰安과生活計劃圖가아니면아니라!부터期待하시라

大毎ニュース 獨逸ウファ社超特作本日版 ジャンヌ·ロシュ主演 ヤンガーダク 時代劇 マキノ·トーキー超特作 主演 澤村國太郎·原駒子 彌太郎笠 大會 (前後篇同時上映) 十一日ヨリ十四日マデ 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毎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一時 第二回 六時 中央館 光二七六三·八八八

松竹キネマ 明治座 12日ヨリ16日マデ上映番組時間表

	1	2	3
ニュース映畵	11·00—11·19	2·53—3·12	6·50—7·09
沙漠の花園	11·21—12·38	3·14—4·31	7·11—8·23
ニュース映畵	12·43—1·38	4·36—5·31	8·33—9·28
希望に立つ	1·41—2·43	5·34—6·36	9·31 10·33

次週豫告 メトロー 踊る不夜城 ユーナイト モダンイムス 再映週間 早朝割引開演時間マデ

十三日부터 晝夜三回 料金階下大人二〇 小人一〇 待望の名畵 朝鮮獨占封切 大同商事映畵 全發聲日本版 ○米國마스코트映畵 連續映畵 『科學攻防戰』 全二篇 一五卷中前篇十三卷上映 全篇戰慄と驚奇の超科學大冒險篇 オットー·ブラウアー ブリース·イスン監督 ジンオートリ·フランキー·ダロウ 共演 ○金勝キネマ超特作 全發聲 連續怪物蝙蝠 『お化け同心』 全二十卷中前篇十卷上映 監督 山田兼則 撮影 荒木慶彥 松本榮三郎·市川松之助 主演 ○大毎·東日ニュース 次週十七日부터 『科學攻防戰』後篇 『お化け同心』後篇 上演 團成社 電光二四九二番

松竹映畵 キネマ 十三日より三日間 ◇新興特作 原作 佐々木味津三 監督 押本七之輔 右門捕物帖 張子の虎 嵐寬壽郎 主演 後音新八郎 鈴木澄子 ◇新興超大作 伊奈精一 監督 たのしき今宵 立松晃 眞山くみ子 主演 あゝ悲しみも若き日は 楽しみも今宵は…… ◇新興大泉時作 海軍爆擊隊 立松晃主演 各社ニュース

第一劇場 電光 一七五五 九月十二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毎日三回興行 一回十一時 二回三時半 三回七時半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二十世紀フォックス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五ッ兒王國 데이온드五姉妹 主演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野村浩將 監督 丸髷混戰記 高杉早苗 川崎弘子 佐分利信 主演 米國리닷치프로덕션金超特作全發聲日本版 바ー나ー드·B·레이監督 달맛치曉의劍俠兒 리챠ー드·탈맛지主演 次週 (メトロ社) 明るいアメリカ艦隊 (松竹)永遠の感激 喜劇のギャング

東洋劇場